

# 제21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체육대회

강릉공설운동장에 25개팀 3천여명 참여  
경주청년회 우승하고 내년에는 청송에서 만나기로



▲ 안동권씨전국청장년체전의 개회식 퍼레이드가 연출되고 있다.



▲ 권혁기 대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권정달 대총회장겸 중앙총친회장인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최명희 강릉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4월 26일 일요일, 강원도 강릉시의 공설운동장에서 제21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열렸다. 내걸린 슬로건은 ‘백만권문 응비의 주역, 우리는 하나되자’였다. 안동권씨의 전국 각지역 청장년회에서 총 25개팀이 참여하고 모여든 인원은 3천이 넘었다. 혹은 4천에 가깝다고 추산하는 이도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강원도의 문향文鄉이자 예향藝鄉이며 우리나라 동해안 최대의 관광휴양도시 강릉에서 안동권씨 문중이 화합하고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행사는 권기동權基東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고적대의 주악이 울려 퍼지면서 선수단의 입장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대회기를 선두로 전국에서 참가하는 25개 청장년회의 기수단이 입장하고 뒤이어 전년도 개최지 경주청년회 선수단이 들어왔다. 다음에는 가나다순으로 각지역 청년회 선수단이 지역의 피켓을 앞세우고 입장하고, 각선수단이 들어올 때마다 사회자가 당해 청년회를 소개하며 지역특성과 선수단 규모 등을 설명하고 이들이 본부석 앞을 지날 때는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대전청년회와 해마다 기발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입장하여 이목을 끄는 울산청년회 선수단이 더 많은 박수갈채를 이끌었다.

입장식을 마치고 권혁기權赫基 강릉청장년회장이 연단에 나와 내빈을 소개하였다. 권정달權正達 대총회장겸 중앙총친회장이 먼저 소개되고 권오만 강릉총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흥규 강릉시의장에 이어 안동권씨의 전국 각지역 총친회장과 청장년회장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국민의례와 시조묘소를 향한 망배가 있는 다음 권혁록 강릉청장년회 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개회가 선언되면서 대회기가 게양되었다. 그리고 전차대회를 개최한 경주청장년회의 권승혁 회장, 권덕용 준비위원장, 권진한 사무국장, 권동찬 재무국장에게 강릉청장년회장이 증명하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안동권문의 화합과 위상의 확립에 기여한 공을 기리는 뜻이었다. 권정달 대총회장은 권오만 강릉총친회장과 권혁윤 강릉총친회 사무국장에게 이번 전국청장년체전을 개최한 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시상을 마치고는 대회장인 권혁기 강릉청장년회장의 대회

사, 권오만 강릉총친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다음 권정달 대총회장겸 중앙총친회장은 격려사를 하면서 ‘금년에 대총회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청도의 아시조 낭중공 단소를 이설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성금이 1억원 가까이 예약기필되어 있는데 청장년회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동권문을 보니 실감이 난다. 강릉시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려 하는데 오늘 입장식을 보고 그 시금석과 같아 전국체전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 강원도가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세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4월 중에 남아프리카의 도바인에서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 백만 안동권문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지를 말하였다. 이어 김흥규 강릉시의회의장도 축사를 하며 같은 요지의 당부를 하였다. 전년도 우승팀 울산청장년회가 우승기를 권혁기 대회장에게 반납하고 권오민씨가 선수단을 대표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개회식 행사가 끝났다. 개회식을 마친 각선수단은 운동장 둘레에 마련된 각자의 텐트로 이동해 해산하고 운동장에서는 이날의 경기종목인 단체줄넘기·윷놀이·족구·400미터 이어달리기 등의 예선전이 시작되었다.

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1시경이 되어 본부석 아래에 있는 회의실에서는 권혁기 대회장의 주재로 전국청장년회장단의 회의가 열렸다. 주의제는 2011년의 대회개최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내년 2010년은 청송으로 이미 확

정이 되어 있고 2012년은 또한 광주로 확정이 되었는데 내후년인 2011년이 미정이었다. 울산과 영천에서 개최의사를 밝혔는데 영천청장년회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을 함에 따라 울산청장년회에서 양보를 하여 결국 영천으로 결정이 되었다. 권병섭 청송청장년회장은 인구 3만에 불과한 청송군에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겸하여 기하고자 안동권씨의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된 취지를 말하고 내년 체전개최를 주도할 청송청년회 임원들을 소개하고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때 대총회의 권영한權永漢 낭중공단소이전추진위원장이 청장년회장단 회의장에 나서서 이단 비용을 모금하는데 청장년회에서도 2천만원 정도를 배정받아 헌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예약기필을 당부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년회장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단추진위원장은 그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바 되었다.

운동장 둘레의 각지역 선수단 텐트에는 주최측에서 돌리는 영덕 대게 등 음식이 분배되었다. 25개팀의 텐트마다 자기 지역 특산물로 장만해온 별미 음식이 풍성하였다. 본부석 앞에 마련된 공연대에서는 인기 코미디언 이용식씨가 특별출연하여 사회를 보면서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와 각참가팀의 장기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 등이 벌어졌다. 그밖에도 주최측에서는 강릉지역 안동권씨의 노년을 모시는 잔치마당을 마련하였으며 안동권씨 체전을 통해 강릉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홍보하고 있었다.

대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나서는 경기 결과가 발표되고 시상이 이루어졌다. 종합우승은 경주, 준우승은 원주, 3위는 광주의 차지였다.

<사진·글 권奇允>



▲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 족구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 장기자랑이 공연되고 있다.